



"사당 당직은 타도 빈대 당직 타서 시원하다"

뜻: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겼지만, 그 때문에 나를 괴롭히던 더 싫은 것이 없어져서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손해 · 골칫거리 · 안도감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사	당	↓	당	직	은	↓	타	도	↓	빈	대
당	직	↓	타	서	↓	시	원	하	다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사	당	↓	당	직	은	↓	타	도	↓	빈	대
당	직	↓	타	서	↓	시	원	하	다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↓				↓				↓	
		↓				↓	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사드] [드ㅈㅇ] [드] [드] [드ㅈ] [드ㅈ] [사ㅇㅎ드]

웹에서 보기

